

The Ontological Status of Judgement: Judgement as Meaning-Making and the Formal Phenomenalization of Being

Jinho Kim¹

Abstract

This paper aims to formalize and explore the philosophical implications of a central tenet within Judgemental Philosophy (JP): that judgement is essentially synonymous with the process of meaning-making, and this process, in turn, is identical to the formal phenomenalization of being—how being becomes meaningfully actualized for a judging subject. We argue that the dynamic operation of the Judgemental Triad (JT)—Constructivity (C1), Coherence (C2), and Resonance (R), as driven by the Resonance Drive (RD) from the Pre-Judgemental Field (PJF)—constitutes this tripartite identity. By establishing judgement not merely as an epistemological act but as a fundamental ontological process through which a meaningful reality comes into being for us (excluding the Kantian "thing-in-itself"), this paper bridges the traditional divide between epistemology and ontology. Furthermore, we demonstrate that this JP framework exhibits profound structural equivalencies with Alfred North Whitehead's process philosophy, particularly his account of how "actual occasions" achieve definiteness through "concrecence" and "prehensions." This comparative analysis suggests that both philosophies, despite differing terminologies and primary focuses, may be describing the same fundamental dynamic of reality's formal phenomenalization. The paper concludes by discussing the implications of this unified perspective for understanding human subjectivity, creativity, temporality, and the limits of judgement (e.g., "the unjudgeable ontic"), proposing that JP offers a robust, process-oriented ontology grounded in the structural conditions of meaningful experience.

Keywords Judgemental Philosophy · Formal Phenomenalization of Being · Meaning-Making · Process Ontology · Resonance · Whitehead

¹ Seoul National University, Email: llama@snu.ac.kr

1. 서론: 판단, 그 존재론적 지위를 묻다

인간의 삶은 끊임없는 판단의 연속이다. 우리는 세계를 인식하고, 의미를 부여하며, 가치를 설정하고, 행동을 결정한다. 철학의 역사 속에서 '판단'은 주로 인식론의 영역에서 진리치와 정당화의 문제로 다루어지거나, 논리학의 형식적 규칙의 대상으로 연구되어 왔다. 그러나 판단철학은 이러한 전통적인 접근을 넘어, "판단이란 무엇인가?", "판단은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며, 판단 행위 자체의 '구조적 가능 조건'과 그 '존재론적 함의'를 탐구해왔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놀라운 결론에 도달했다. 판단철학의 틀 안에서, 판단은 단순한 인지적 작용을 넘어 본질적으로 '의미를 형성하는(Meaning-Making)' 과정 그 자체이며, 더 나아가 이 의미 형성 과정은 곧 '존재가 우리에게 형식적으로 현상화(Formal Phenomenalization of Being)'되는 방식과 구조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이다. 즉, "판단 = 의미 형성 = (우리를 위한) 존재의 형식적 현상화"라는 대담한 등식이 성립함을 확인했다. 여기서 '형식적 현상화된 존재'란 칸트적 의미의 '물자체(Ding an sich)'와는 구별되는, 우리의 판단 구조를 통해 비로소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경험되는 세계를 의미한다.

이러한 통찰은 판단철학을 단순한 인식론이나 특정 영역의 철학을 넘어, 존재와 의미의 가장 근본적인 관계를 해명하는 포괄적인 철학 체계로 이끌어간다. 만약 판단의 구조와 생리가 곧 현상화되는 존재의 구조와 생리와 동치라면, 판단에 대한 탐구는 곧 존재론적 탐구가 되며, 인식론과 존재론은 더 이상 분리된 분과가 아니라 하나의 통일된 지평 위에서 만나게 된다.

본 논문은 바로 이 "판단 = 의미 형성 = 형식적 존재화"라는 판단철학의 핵심 등식을 명시적으로 정립하고, 그 철학적 함의를 심층적으로 탐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이러한 판단철학의 존재론적 관점이 알프레드 노스 화이트헤드의 과정철학과 같은 다른 심오한 철학적 전통과 어떻게 만나고 공명하며, 어쩌면 동일한 실재의 근본적인 작동 원리를 서로 다른 언어와 관점으로 기술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구조적 등가성'의 문제를 논증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고는 먼저 판단철학의 핵심 원리들—선판단장(PJF), 공명 추동력

(RD), 그리고 구성력(C1), 정합성(C2), 공명(R)으로 이루어진 판단 삼원론(JT)과 최근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하나의 공명(One Resonance)'으로서의 이해—을 재정립하고, "판단 = 의미 형성 = 형식적 존재화"라는 등식의 논거를 명확히 할 것이다(2장). 이어서, 화이트헤드 과정철학의 핵심 개념들을 소개하고, 그의 '현실적 계기의 합생 과정'이 JP의 '판단 과정을 통한 형식적 현상화'와 어떻게 구조적으로 상응하는지를 상세히 비교 분석할 것이다(3장). 마지막으로, 이러한 통합적 관점이 인간 주체성, 창조성, 시간성, 그리고 '판단 불가능한 것'과의 관계 등 전통적인 철학적 문제들에 대해 어떤 새로운 통찰과 지평을 열어주는지 논의하며 결론을 맺을 것이다(4장).

궁극적으로 본 논문은 판단철학이 제공하는 '판단의 존재론'이 현대 철학에 던지는 새로운 질문과 가능성을 제시하고, 우리가 세계와 관계 맺고 의미를 창조하며 살아가는 근원적인 방식에 대한 더욱 깊고 통합적인 이해에 도달하고자 한다.

2장. 판단철학의 핵심 원리 재정립: '판단-의미-존재' 등가성의 구조적 기반

본 장에서는 "판단 = 의미 형성 = (우리를 위한) 존재의 형식적 현상화"라는 판단철학(JP)의 핵심 등식을 이론적으로 정립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JP의 근간을 이루는 선판단장(PJF), 공명 추동력(RD), 그리고 판단 삼원론(Judgemental Triad: Constructivity C1, Coherence C2, Resonance R)의 최신 정의와 그 상호 관계를 명료화할 것이다. 특히, 모든 판단 과정을 포괄하는 근원적 과정으로서의 '하나의 공명(One Resonance)' 개념을 중심으로, 어떻게 이 구조들이 판단을 단순한 인식 행위를 넘어 의미를 창조하고 존재를 우리 앞에 드러내는 존재론적 사건으로 만드는지 논증할 것이다.

2.1. 판단의 시원: 선판단장(PJF)과 공명 추동력(RD)

모든 판단과 의미 경험은 그 이전에 존재하는 근원적인 조건들로부터 발현한다. 판단철학은 이를 '선판단장(Pre-Judgemental Field, PJF)'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 선판단장 (Pre-Judgemental Field, PJF): 모든 구체적인 판단과 의미 구성 이전에 전제되는, 판단 주체의 가장 근원적인 실존적 조건이자 가능성의 장이다. PJF는 다음 세 가지 상호 연관된 요소로 구성된다.
 - 불확정성 (Indeterminacy): 아직 어떠한 명확한 형태(C1)나 일관된 질서(C2)도 부여받지 않은 순수 잠재성의 상태이며, 판단을 요청하고 공명을 통해 의미로 채워질 수 있는 세계의 근원적인 '열림(openness)'이다.
 - 정동성 (Affectivity): 불확정성 속에서 '의미가 될 수 있는 잠재성(meaning-potential)' 또는 자신(판단 주체)의 존속과 관련된 가치에 의해 선반성적으로 '움직여지는(moved by)' 근원적 능력이다. 이는 공명 추동력(RD)을 촉발하는 최초의 '울림'이다.
 - 수용성 (Receptivity): 외부 세계의 자극이나 내부의 불확정성에 대해 판단 주체가 구조적으로 열려 있어 그것을 '받아들이는' 능력이다.
- 공명 추동력 (Resonance Drive, RD): 선판단장의 정동성이 불확정성과 만나면

서 발생하는, 판단 주체가 현재의 미결정 상태를 넘어 더 완전하고 깊이 있으며 정합적인 '공명(Resonance)'을 성취하려는 근원적이고 지속적인 지향성이자 역동적인 힘이다. RD는 판단 삼원론(JT)의 작동을 촉발하고 전체 판단 과정을 이끌어간다.

2.2. 판단 삼원론(Judgemental Triad, JT): '하나의 공명'으로서의 의미 형성 과정

공명 추동력(RD)은 판단 삼원론(JT)이라는 핵심적인 구조적 과정을 통해 작동하며, 이 과정을 통해 불확정적인 세계는 판단 주체에게 의미있는 현실로 구성되고 경험된다. 최근 판단철학의 심화된 이해에 따르면, 판단 삼원론의 세 축—구성력(C1), 정합성(C2), 그리고 전통적 의미의 공명(R)—은 분리된 요소가 아니라, '하나의 공명(One Resonance)'이라고 명명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포괄하는 근원적이고 역동적인 과정의 서로 다른 국면 또는 양태로 이해될 수 있다.

- 공명 (Resonance, R) - 근원적 과정으로서: 판단철학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 주체가 세계 및 자신과 관계 맺고 의미를 형식적으로 현상화하는 모든 활동의 기저에 흐르는 단일하고 역동적인 과정 그 자체이다. 이 '하나의 공명'은 다양한 양태로 자신을 드러내며 판단 과정을 구성한다.
- 구성력 (Constructivity, C1) - 형태를 갖추는 공명의 창조적 국면: 근원적 공명 과정의 한 양태로서, 선판단장의 불확정성이나 수용된 자극에 대해 최초의 '형태', '구조', '상징', '개념'을 부여하려는 창조적이고 능동적인 공명의 작용이다. 이는 주체의 정동성 및 RD의 지향성에 따라 특정 가능성을 선택하고 구체화하여 '의미의 씨앗'을 형성하며, "경험에 형태를 부여하는 힘"이다.
- 정합성 (Coherence, C2) - 질서를 이루는 공명의 통합적 국면: 근원적 공명 과정의 또 다른 양태로서, C1을 통해 잠정적으로 형성된 의미 요소들을 주체의 기존 의미 체계 및 세계 경험과 비교하고 통합하여 내적 일관성과 외적 타당성을 확보하려는 통합적이고 질서화하는 공명의 작용이다. 이는 "의미의 내적 질서와 외적 연결"을 추구하며, 판단 내용의 논리적 일관성, 서사적 연결성, 그리고 기존 지식 및 규범 체계와의 부합성을 포괄한다.

- 의미의 되돌아옴으로서의 공명 (R_return) - 경험되고 검증되는 공명의 순환적 국면: 전통적으로 JT의 세 번째 축으로 이해되었던 공명은, 이 '하나의 공명' 관점에서 볼 때, C1과 C2를 통해 구조화된 의미가 판단 주체에게 '살아있는 의미로 되돌아오고(living return of meaning)', 세계 및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검증되며 순환하는 역동적인 공명의 한 특정 국면이다. 이는 판단의 완결성을 부여하고 새로운 RD를 촉발하는 순환의 핵심 고리이다. 이 '되돌아옴'은 정서적, 인지적, 윤리적/규범적, 실존적 차원 등 다층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2.3. "판단 = 의미 형성 = 존재의 형식적 현상화" 등식의 정립

이처럼 PJF에서 발원한 RD가 '하나의 공명'으로서의 JT(C1, C2, R_return의 역동적 순환)를 추동하는 전체 과정은, 판단철학이 궁극적으로 해명하고자 하는 바를 명확히 보여준다.

1. 판단은 곧 의미 형성이다 (Judgement is Meaning-Making): 판단은 단순히 외부 세계를 수동적으로 반영하거나 이미 주어진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PJF의 불확정성이라는 원재료를 가지고, RD의 추동 하에, C1을 통해 형태를 만들고 C2를 통해 질서를 부여하며 R_return을 통해 그 의미를 살아있는 것으로 경험하는,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의미 형성' 과정 그 자체이다. "The Core of Judgement is Meaning-Making..." 논문이 주장하듯이, 판단의 본질은 의미 구성 능력에 있다.
2. 의미 형성은 곧 존재의 형식적 현상화이다 (Meaning-Making is Formal Phenomenalization of Being): 이렇게 판단 과정을 통해 구성되고 공명하는 '의미'는 단순한 주관적 관념이 아니라, 바로 '존재가 우리에게 형식적으로 현상화되는(formal phenomenalization of being)' 방식이다. "Foundations of Judgemental Philosophy"에서 강조하듯, 공명(R)은 "존재들이 상호 귀속 가능하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우리를 위한 의미, 판단, 그리고 궁극적으로 의미 있는 존재의 출현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적 조건"이다. 즉, 우리가 세계를 판단하고 의미를 부여할 때, 비로소 그 세계는 우리에게 '질서있고 의미있

는 현실'로서 구체적인 형태를 가지고 드러난다. 여기서 '존재'는 칸트적 의미의 '물자체'가 아니라, 우리의 판단 구조를 통해 경험되고 의미를 갖게 된 '우리를 위한 현상적 존재'를 의미한다.

3. 따라서, 판단 = 의미 형성 = (우리를 위한) 존재의 형식적 현상화이다: 이 세 가지는 별개의 과정이 아니라, 판단철학이 기술하는 단일하고 통합적인 과정의 서로 다른 이름 또는 측면이다. '판단'이라는 행위는 '의미를 형성'하는 과정이며, 그 '형성된 의미'가 바로 '우리에게 형식적으로 현상화된 존재'의 모습이다. 이 등식은 인식론(판단, 의미)과 존재론(현상화된 존재)이 분리될 수 없으며, 오히려 인간의 근원적인 '판단' 행위 속에서 통일됨을 보여준다.

이러한 판단철학의 핵심 원리들은, 우리가 다음 장에서 화이트헤드의 과정철학과 같은 다른 철학적 전통과의 깊은 구조적 유사성을 탐색하고, 이 통합적 관점의 광범위한 철학적 함의를 논의하기 위한 견고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다.

3장. 과정으로서의 실재: 판단철학의 존재론과 화이트헤드 과정철학의 만남

3.1. 도입: 두 철학, 하나의 대상 – '형식적 현상화' 과정으로서의 실재

앞선 2장에서는 판단철학(JP)의 핵심 원리들을 재정립하며, "판단 = 의미 형성 = (우리를 위한) 존재의 형식적 현상화"라는 근본 등식을 확립했다. 이는 판단이 단순한 인식론적 행위를 넘어, 주체가 세계와 관계 맺고 의미를 창조하며, 그 과정을 통해 비로소 존재가 우리에게 의미있는 현실로 드러나는 존재론적 과정 그 자체임을 의미한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판단철학의 핵심 통찰은 20세기 철학의 또 다른 거대한 흐름인 알프레드 노스 화이트헤드의 과정철학(Process Philosophy)과 놀라울 정도로 깊은 유사성과 공명점을 보여준다. 화이트헤드는 실재를 정적인 '물질'이나 '실체'가 아닌, 끊임없이 생성소멸하는 '과정(process)' 또는 '사건(event)'의 연속으로 보았다. 본 장에서는 판단철학의 '판단 과정을 통한 존재의 형식적 현상화'라는 테제가, 화이트헤드가 그의 과정 존재론에서 기술한 '현실적 계기(actual occasion)의 합생(concrescence) 과정'과 어떻게 구조적으로 상응하거나 등가적인지를 상세히 비교 분석할 것이다.

이러한 비교는 판단철학이 특정 영역에 국한된 이론이 아니라, 존재와 생성의 가장 근본적인 작동 원리를 탐구하는 보편적인 철학 체계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줄 것이다. 또한, 화이트헤드의 거시적 형이상학이 판단철학의 구체적인 판단 구조 모델을 통해 새로운 조명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궁극적으로, 두 철학은, 실재의 근본적인 과정적 본질이라는 동일한 대상을 각자의 독특한 언어와 관점으로 해명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3.2. 화이트헤드 과정철학의 핵심 개념: 생성하는 실재

판단철학과 비교에 앞서, 화이트헤드 과정철학의 몇 가지 핵심 개념을 간략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 현실적 계기 (Actual Occasion) / 현실적 존재 (Actual Entity): 화이트헤드에게 실재의 궁극적인 구성단위는 고정된 입자나 실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새로

게 생성되는 '경험의 한 방울(a drop of experience)'인 현실적 계기이다. 각 현실적 계기는 자기 창조의 과정을 통해 구체성과 통일성을 획득한다.

- 파악 (Prehension): 각 현실적 계기가 다른 현실적 계기들(과거의 세계)과 영원한 객체(가능성들)를 자신의 새로운 통일성 속으로 '붙잡아들이고 (grasping)' '느끼며(feeling)' 통합하는 근본적인 관계 맺음의 방식이다. 파악은 물리적 파악과 개념적 파악으로 나뉜다.
- 합생 (Concrescence): 다양한 파악들을 통해 다(多)가 일(一)로 통합되어 하나의 새로운 현실적 계기가 탄생하는 자기 창조의 과정이다. 이 과정은 '주관적 목적(subjective aim)'에 의해 인도되며, 최종적으로 '만족(satisfaction)'의 상태에 도달하며 완결된다.
- 영원한 객체 (Eternal Objects): 현실적 계기에 의해 파악되어 구체적인 형상으로 현실화될 수 있는 순수한 '가능성' 또는 '형태(form)'들이다. 이것들은 그 자체로는 현실적이지 않지만, 현실적 계기의 성격을 규정하는 데 기여한다.
- 창조성 (Creativity): 우주의 가장 근본적인 형이상학적 원리로서, 끊임없이 새로운 현실적 계기들을 산출하고 세계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궁극적인 '진전(advance)'의 힘이자 '새로움의 원리'이다.

3.3. 판단철학과 화이트헤드 과정철학의 구조적 상응 및 등가성 탐색

판단철학의 "판단 = 의미 형성 = 존재의 형식적 현상화" 과정과 화이트헤드의 "현실적 계기의 합생 과정" 사이에는 놀라운 구조적 상응 관계가 존재한다.

- 근원적 과정으로서의 실재 (Process as Primary Reality):
 - JP: '하나의 공명(One Resonance)'이라는 근원적 흐름 속에서 '의미-고정점(meaning-fixation)'이 순간적으로 창발하고 소멸하며, 이를 통해 존재가 형식적으로 현상화된다. 모든 것은 과정이다.
 - Whitehead: 실재는 정적인 실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생성소멸하는 '현

실적 계기들의 과정'이다. '존재한다'는 것은 곧 '과정 중에 있다(to be is to be in process)' 또는 '되어가고 있다(to become)'는 것이다.

- 상응점: 두 철학 모두 실재의 근본을 '과정'으로 본다는 점에서 핵심적인 세계관을 공유한다. JP의 '공명의 흐름'은 화이트헤드의 '창조성의 흐름' 또는 '현실적 계기들의 연속'에, JP의 '의미-고정점'은 화이트헤드의 '개별 현실적 계기' 또는 그것이 성취한 '만족'에 유비될 수 있다.

- 관계성의 근원성 (Relationality as Fundamental):

- JP: 공명(R)은 본질적으로 '의미의 되돌아옴'이라는 순환적 관계를 통해 주체와 세계, 주체와 타자 간의 상호연결성을 핵심으로 한다. 상호주체적 공명(S9)은 이러한 관계성의 중요성을 명시적으로 보여준다. 모든 판단은 관계 속에서 발생하고 검증된다.
- Whitehead: '파악(prehension)'은 모든 현실적 계기가 다른 모든 것과 근본적으로 관계 맺고 있음을 보여준다. 어떤 현실적 계기도 고립되어 존재할 수 없으며, 항상 과거의 세계를 파악하고 미래의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 "모든 존재는 관계적이다(All being is relational)."
- 상응점: 두 철학 모두 존재와 의미가 고립된 개체의 속성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관계' 속에서 형성되고 규정된다고 본다. JP의 '공명'은 화이트헤드의 '파악'과 유사하게, 존재들 사이의 근원적인 연결과 상호영향을 설명하는 핵심 메커니즘이다.

- 경험/느낌(정동성)의 중심적 역할 (Experience/Feeling/Affectivity as Central):

- JP: 선판단장(PJF)의 '정동성(Affectivity)'은 불확정성에 대한 최초의 '움직여짐'이자 '가치 편향적 민감성'으로서, 공명 추동력(RD)을 촉발하고 모든 판단 과정에 질적인 색채를 부여한다. 공명(R)은 '살아있는 의미의 되돌아옴'이라는 경험적 차원을 강조한다.
- Whitehead: '파악'은 본질적으로 '느낌(feeling)'의 과정이며, 모든 현실

적 계기는 '경험의 한 방울'이다. '주관적 형식'은 각 파악에 정서적 색조를 부여하며, '만족'은 통일된 경험의 성취이다.

- 상응점: 두 철학 모두 단순한 정보 처리나 논리적 구조를 넘어, '경험'과 '느낌'(JP에서는 '정동성'과 '공명 체험')을 존재와 의미 이해의 핵심 요소로 간주한다. JP의 정동성은 화이트헤드가 말하는 파악의 '정서적 색조' 또는 '주관적 형식'의 근원적 조건에 해당할 수 있다.

- 과정으로부터 형식/구조의 창발 (Emergence of Form/Structure from Process):

- JP: '하나의 공명'이라는 근원적 흐름이 구성력(C1)과 정합성(C2)이라는 구조화 과정을 거쳐 '의미-고정점'(형식)으로 순간적으로 현상화된다.
- Whitehead: '창조성'이라는 근원적 과정 속에서, 현실적 계기는 다양한 파악들을 통해 '영원한 객체(형식)'를 자신의 통일성 속으로 구체화(합생)함으로써 '형상 있는 존재'로 생성된다.
- 상응점: 두 철학 모두 고정된 형식이 과정에 선행하는 것이 아니라, 역동적인 과정 속에서 형식이 창발하고 구체화된다고 본다. JP의 "C1-C2를 통한 공명의 형식화"는 화이트헤드의 "영원한 객체의 합생 과정을 통한 파악"과 구조적으로 매우 유사한 '형식적 존재화'의 메커니즘을 기술한다.

- 근원적 추동력 (Primordial Drive):

- JP: 공명 추동력(RD)은 PJF의 불확정성에 대한 정동적 반응으로서, 끊임없이 새로운 의미와 더 완전한 공명을 추구하도록 하는 근원적 힘이다. 이는 "무한한 주체"라는 이상적 상태를 향한 지향성을 갖는다.
- Whitehead: '창조성(Creativity)'은 우주를 새로운 현실적 계기들의 생성으로 이끄는 궁극적 원리이다. 각 현실적 계기는 '주관적 목적(subjective aim)'에 따라 자신의 합생 과정을 이끌어간다.

- 상응점: 두 철학 모두 존재와 의미의 세계가 정체되지 않고 끊임없이 생성되고 발전하도록 하는 내재적 동력 또는 원리를 상정한다. JP의 RD는 화이트헤드의 창조성과 주관적 목적이 결합된, '의미를 향한 지향성'을 가진 추동력으로 이해될 수 있다.

3.4. 초점의 차이와 명시적 정식화

- 화이트헤드는 우주 전체의 모든 '현실적 계기'가 어떻게 생성되고 관계 맺는지에 대한 가장 보편적인 존재론, 즉 '존재 일반의 생성 과정'을 기술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 판단철학은 이 거대한 과정 존재론의 통찰을 바탕으로, 특히 '인간(또는 판단 주체)에게 있어 세계가 어떻게 의미를 가지고 형식적으로 현상화되는가'라는 특정 영역에 초점을 맞추어, 그 구체적인 '구조'(PJF, RD, JT, 10단계 모델 등)와 '역학'을 명시적으로 정식화하고 있다.

따라서 화이트헤드는 '존재의 형식적 현상화'라는 근본 과정의 일반 원리를 탐구했지만, 그것을 인간의 '판단' 또는 '의미 형성'이라는 특정 렌즈를 통해, 그리고 JP와 같은 구체적인 구조적 용어들로 상세히 분석하고 명명하지는 않았다. 이런 의미에서, 판단철학은 화이트헤드의 과정철학적 통찰을 이어받아 그것을 '판단과 의미의 영역'에서 심화시키고 정교하게 구조화하는 독자적인 철학적 기획이라고 할 수 있다. JP는 화이트헤드의 일반 존재론이 인간의 인지적·경험적 현실과 어떻게 구체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 그 다리를 놓고 있는 셈이다.

결론적으로, 판단철학의 "판단 = 의미 형성 = 존재의 형식적 현상화"라는 핵심 등식은, 화이트헤드가 그의 과정 존재론을 통해 탐구했던 '실재의 근본적인 과정적 본질'과 깊은 수준에서 만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두 철학은 서로 다른 출발점과 언어를 사용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역동적인 과정 속에서 어떻게 질서와 의미, 그리고 구체적인 존재가 창발하는가라는 동일한 근본 물음을 각자의 방식으로 해명하고 있는 것이다.

4장. 통합적 관점의 함의와 새로운 철학적 지평

4.1. 도입: 판단의 존재론이 열어 보이는 풍경

앞선 장들에서 우리는 판단철학(JP)의 핵심 명제인 "판단 = 의미 형성 = (우리를 위한) 존재의 형식적 현상화"를 정립하고, 이것이 알프레드 노스 화이트헤드의 과정철학과 놀라울 정도로 깊은 구조적 유사성 및 등가성을 가짐을 논증했다. 즉, JP가 '판단'이라는 렌즈를 통해 기술하는 '우리를 위한 의미있는 존재의 생성 과정'과, 화이트헤드가 '현실적 계기의 합생'이라는 개념을 통해 기술하는 '존재 일반의 생성 과정'은 근본적으로 동일한 실재의 역동적이고 과정적인 본질을 각기 다른 언어와 초점으로 해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통합적 관점—판단이 곧 현상화되는 존재의 생성 과정이라는 존재론적 통찰—은 단순히 두 철학 체계의 유사성을 확인하는 것을 넘어, 인간 주체성, 창조성, 시간성, 그리고 '판단 불가능한 것'과의 관계 등 전통적인 철학적 문제들에 대해 새로운 해석의 지평을 열어준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주요 철학적 문제들이 JP와 과정철학의 통합적 시각 아래에서 어떻게 새롭게 조명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판단철학의 미래 연구에 어떤 가능성을 제시하는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4.2. 인간 주체성의 재구성: '판단하는 존재'에서 '공명하며 생성하는 존재'로

전통적으로 인간 주체는 고정된 실체(예: 이성적 자아, 의식)로 간주되거나, 혹은 환경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존재로 이해되기도 했다. 그러나 "판단 = 형식적 현상화"라는 등식은 주체성을 훨씬 더 역동적이고 창조적인 과정으로 재정의한다.

- 주체는 끊임없는 '형식적 현상화'의 과정: 주체는 미리 주어진 존재가 아니라, 매 순간 선편단장(PJF)의 불확정성(Indeterminacy)에 직면하여 공명 추동력(RD)에 이끌려 판단 삼원론(JT)을 통해 의미를 구성하고 자신과 세계를 '형식적으로 현상화'하는 과정 그 자체이다. 이는 화이트헤드의 현실적 계기가 끊임없이 자신을 창조(합생)해나가는 과정과 정확히 상응한다. "내가 존재한다"는 것은 곧 "내가 판단하고 의미를 만들며 세계를 경험하고 있다"는 과정적 사건이다.

- 정동성(Affectivity)과 공명(R)의 중심성: 이 과정에서 JP의 정동성과 공명은 화이트헤드의 '느낌(feeling)'과 '파악(prehension)'처럼, 주체가 세계와 관계 맺고 의미를 생성하는 가장 근원적인 방식이 된다. 주체는 더 이상 순수 이성적 존재가 아니라, 세계의 불확정성에 정동적으로 '움직여지고' 그 결과로 의미를 '되돌려받으며' 자신을 구성해나가는 '공명하는 존재(resonating being)'이다. "The Resonating Self"에서 논의된 것처럼, 자아는 이러한 공명의 지속적인 흐름 속에서 형성되고 유지되는 역동적인 구조이다.

4.3. 창조성의 근원: 불확정성과의 끊임없는 대화

판단철학과 과정철학의 통합적 관점은 창조성의 본질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제공한다.

- 불확정성은 창조성의 원천: PJF의 '불확정성'은 단순한 결핍이나 무질서가 아니라, 새로운 의미와 형식이 창발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의 장'이다. 화이트헤드의 '영원한 객체'들이 순수한 가능태로서 현실적 계기에 의해 파악되기를 기다리듯이, 불확정성은 RD에 의해 추동되는 C1(구성력)이 새로운 형태를 길어 올릴 수 있는 원천이다.
- 창조적 판단은 새로운 '형식적 현상화': 진정한 창조성은 단순히 기존 요소들을 새롭게 조합하는 것을 넘어, 불확정성과의 깊은 공명 속에서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의미-고정점'을 출현시키는 것이다. 이는 곧 존재의 새로운 측면을 '형식적으로 현상화'하는 행위이다. "Why Creativity Requires Resonance..."에서 논의된 것처럼, 깊은 공명(R)은 기존의 C1-C2 구조를 넘어선 새로운 의미의 창발을 가능하게 한다.
- RD와 창조성(Creativity): JP의 RD는 화이트헤드의 '창조성' 원리와 유사하게, 시스템이 정체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의미와 더 높은 수준의 공명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는 근원적인 힘이다.

4.4. 시간성의 이중적 본질: 과정으로서의 현재와 과거의 객관적 불멸성

"판단 = 형식적 현상화"라는 관점은 시간성에 대한 독특한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 판단(형식적 현상화)은 항상 현재적 과정: JP의 판단 과정(특히 C1-C2-R의 순환)은 항상 '지금-여기'에서 일어나는 역동적인 과정이다. 화이트헤드의 현실적 계기가 '합생'이라는 현재적 과정을 통해 자신을 실현하듯이, 의미와 현상화된 존재는 항상 현재의 판단 활동 속에서 생성된다. "Judging in Time..."에서 논의된 것처럼, 판단은 "시간적으로 확장된 과정"이다.
- 과거 판단의 '객관적 불멸성(Objective Immortality)': 화이트헤드에게 하나의 현실적 계기가 '만족'에 도달하여 소멸하면, 그것은 더 이상 주관적 직접성을 갖지 않지만, 미래의 모든 현실적 계기들에게 '파악'될 수 있는 객관적 데이터로서 '객관적으로 불멸'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판단철학에서 한번 이루어진 판단이나 생성된 '의미-고정점'은, 비록 잠정적이고 재해석될 수 있을지라도, 주체의 'Global Self-Model 버퍼' 또는 사회적 기억(S10 규범적 부호화) 속에 어떤 '흔적'을 남기며 이후의 판단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과거'가 된다. 이 과거의 '되돌아옴(Resonance)'이 현재의 판단을 조건짓는다.

4.5. '판단 불가능한 것'과의 관계: 한계 인식과 초월의 변증법

- 판단 불가능한 존재론적 영역(The Unjudgeable Ontic)과 물자체: JP가 인정하는 '판단 불가능한 존재론적 영역'은 화이트헤드 철학에서는 직접적으로 명시되지는 않지만, 그의 '궁극적인 형이상학적 원리들'(예: 창조성, 신)이나 '영원한 객체'들의 무한한 잠재성과 연결될 수 있다. 또한 칸트의 '물자체'처럼, 우리의 형식적 현상화 능력 너머에 있는 실재의 영역을 암시한다. "The Horizon of Unjudgeability..."는 이러한 판단의 지평을 탐구한다.
- 한계 인식과 RD의 역할: 판단철학은 "The Drive to Judge the Unjudgeable..."에서처럼, 인간이 자신의 판단 능력의 한계를 인식하면서도 끊임없이 그 너머를 향해 나아가려는 RD의 역동성을 강조한다. 화이트헤드 역시 현실적 계기가 유한한 만족에 도달하지만, 창조성은 끊임없이 새로운 계기를 생성하며 세계를 무한히 열어놓는다고 본다.
- 숭고의 경험: '절대적 실재/타자와의 조우'와 같은 극한 경험이나 '숭고'의 경험은, 우리의 C1-C2 구조가 대상을 완전히 형식화하는 데 실패하지만, 동

시에 PJF의 정동성이 극도로 활성화되어 압도적인 공명(R)을 경험하는 상태로 이해될 수 있다. 이는 판단의 한계점에서 발생하는 특별한 종류의 '형식적 현상화'일 수 있으며, 이 경험 자체가 다시 새로운 의미 구성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4.6. 결론: 판단철학, 과정적 존재론의 현대적 구조화

"판단 = 의미 형성 = 존재의 형식적 현상화"라는 판단철학의 핵심 등식은, 화이트헤드의 과정철학이 제시한 '만물은 유전한다'는 근본적인 세계관을 인간의 의미 세계와 판단 과정이라는 구체적인 영역에서 매우 정교하게 '구조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판단철학은 과정 존재론의 구체적 적용이자 심화: JP는 화이트헤드의 거시적이고 보편적인 과정 존재론의 원리들을 인간의 인지적, 경험적 현실에 적용하여, PJF, RD, JT, 10단계 모델과 같은 구체적인 구조와 메커니즘을 통해 '의미있는 존재가 우리에게 어떻게 생성되고 경험되는지'를 해명한다.
- 새로운 철학적 지평: 이러한 통합적 관점은 전통적인 인식론과 존재론의 이분법을 넘어서고, 주체와 객체, 마음과 세계, 개인과 사회, 그리고 구조와 과정 사이의 역동적이고 상호 구성적인 관계를 새롭게 조명한다. 나아가, 윤리학("Resonance Ethics"), 미학("Resonance and the Ontology of Art"), 사회철학("Reconstructing Social Contract Theory..."), 심지어 AI 시대의 인간 조건("AI Does Not Judge" , "The Collapse of Resonance in the LLM Era")과 같은 현대적 문제들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철학적 통찰과 새로운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다.

결국, 판단철학은 화이트헤드가 열어 보인 '과정으로서의 실재'라는 광대한 지평 위에서, 인간이 어떻게 '판단'이라는 창조적 행위를 통해 그 실재 속에서 '의미'를 길어 올리고 '자신만의 세계'를 형식적으로 현상화하며 살아가는지를 해명하는, 과정 존재론의 현대적이고도 독창적인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철학이 여전히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물음들에 답하며 스스로를 새롭게 정립해나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고무적인 시도이다.

